全北學硏究 제15집(2025)
2025년 8월 31일, 1-30쪽
The Journal of Jeonbuk Studies, Vol.15(2025)
https://doi.org/10.59592/JBST.2025.15.1

남원읍성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 방안*

자매결연 도시 연계 방안 중심으로

이석형**

목 차

1. 서론
2. 남원읍성 활용 현황의 한계와 가능성
3. 인식의 전환 : '저항과 평화' 공간으로서의 남원읍성과 남원
4. '저항과 평화의 도시 남원읍성과 남원' 비전체계와 자매결연 도시 연계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1597년 일본에 의해 재차 발발한 정유재란 직전에 남원읍성이 수축되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남원읍성은 최근 발굴 및 복원작업이 진행중이다. 최근 읍성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운영하며 보존을 넘어 활용이란 측면에서 읍성이 가진 가치를 확대시키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실제 읍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남원읍성은 성벽이 약 200M정도 복원된 상태로 활용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남

* 이 글은 2024년 12월 12일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주최한 '2024 남원성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음.
** 전북연구원 연구원, E-mail: leewin0122@jthink.kr

원읍성 활용에 대한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역사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읍성이 위치한 남원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특수한 역사문화자원과 결합하여 '남원읍성과 남원'의 역사성을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원읍성의 활용을 위해 단순히 전쟁 유적으로서 '호국'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쟁 유적과 관련하여 '공존·공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남원읍성 역시 일국사적 관점인 '호국'의 정신을 넘어 Trans-national 관점에서 '공존·공생을 위한 평화'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남원읍성과 남원은 '저항과 평화'의 도시라는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를 넘어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주제어 : 남원읍성, 평화, 저항, 자매결연, 활용방안

1. 서론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냉병기가 활용된 전쟁에서 성(城)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고대 중국에서 축조된 만리장성(萬里長城)은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저지하는 방어선으로 자국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중세 한국에서도 북방에 세거하던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비롯해 다양한 성들을 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 축조되거나 개보수를 거친 읍성 축조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읍(邑)을 보호하기 위해 관부와 민가를 둘러 읍성을 축조하였다. 남원읍성 역시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강화교섭이 결렬되자 1597년(선조 30) 재차 발발한 정유재란 직전에 수축(修築)이 이루어졌다.[1] 불과 3달 뒤인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원에서는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4일 만에 남원읍성은 함락되었다. 남원읍성 전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일본군에 의해 살육당한 조명연합군과 민간인의 수는 3726명에서 50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2]

1) 『선조실록』 권88, 선조 30년 5월 8일.
2) 박현규, 「정유재란 시기 남원성 전투 고찰-명 양원(陽元)을 중심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5, 2018, 144쪽; 박현규,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순절자의 무덤과 제향

남원읍성이 수축되던 1597년 명 장수 양원(陽元)은 남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밝히듯이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노선은 충주와 남원 노선이 있었으며, 후자는 거리가 충주보다 멀지만 평탄한 지형으로 중요한 위치에 남원이 있었다는 것이다.[3] 남원성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고려 말 황산대첩, 조선 중기 정유재란 등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조선 중기 정유재란의 시작과 함께 치러진 남원성 전투에서 사망한 조명연합군 병사와 백성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거대한 무덤인 만인의총(萬人義塚)이 만들어졌다. 현대에 들어와 이를 기념하고 활용하기 위해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만인의총관리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호국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보존·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4] 최근에는 읍성이 위치한 지자체는 읍성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다양한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5] 각 지자체는 읍성에 대한 보존을 넘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운영하며 기존의 읍성이 가진 가치를 확대시키는데 치중하고 있다. 남원읍성과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역사 교육과 더불어 지역민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여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증대되었으며, 다양한 축제 등을 개최하여 경제적 가치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실제 읍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읍성을 활용한 축제들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는지, 관광객이 읍성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축제를 즐길 거리로 여기는 등 한계가 나타난다. 가시적인 성과만큼이나 역사문화자원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역사성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성을 부여하고 역사적 의미에 기반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자국의 역사 중심의 활용 방안을 탈피하고 전쟁 유적과 관련된 유적지에 '평화'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변국가와 공존·공생할 수

연구」, 『일본연구』32, 2019, 282쪽.

3) 박현규, 위의 논문, 2018, 120쪽.

4) https://www.khs.go.kr/agapp/public/html/HtmlPage.do?pg=/manin/01/sub01_01.jsp&pageNo=79010000&siteCd=MANIN (2024.10.24.)

5) 김동찬·마원, 「중국 서안시 명성곽공원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39, 2011; 김철영, 「대구시 읍성지역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도시설계』15, 2014; 이강열, 「병영성과 호서좌영의 역사성을 살린 서산 해미읍성의 문화컨텐츠 활용방안」, 『충청학과 충청문화』16, 2013; 이향란·이상준, 「읍성공간 건축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13, 2012.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6] 특히 제주도의 환태평양공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호국'의미를 넘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남원읍성은 타 지역의 읍성들과 다르게 현재 발굴조사와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활용이란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성벽은 약 200m 정도 복원이 된 상태이며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남원시는 춘향제 등 특별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남원읍성이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원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남원읍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부여하고 다양한 활용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 10여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국가 또는 타 지역과의 자매·우호결연을 통해 교류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관심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원읍성의 역사성,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내를 넘어 주변국가로의 확대를 통해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남원읍성과 남원시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남원읍성이 보여줄 수 있는 멋이 드러날 수 있길 기대한다.

2. 남원읍성 활용 현황의 한계와 가능성

남원은 국보를 비롯해 129건의 유산이 지정되었으며 남원읍성은 1982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7] 현재는 성벽의 일부만이 남이 있으며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복원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전체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기록을 통해 남원읍성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

6)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동북아시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 경인문화사, 2021.

7)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ulPageNo=3&region=&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2=&s_kdcd=&s_ctcd=35&ccbaKdcd=13&ccbaAsno=02980000&ccbaCtcd=35&ccbaCpno=1333502980000&ccbaCndt=&ccbaLcto=15&stCcbaAsno=&endCcbaAsno=&stCcbaAsdt=&endCcbaAsdt=&ccbaPcd1=&chGubun=&header=region&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pageNo=1_1_3_1&sngl=Y(2024.11.15.)

남원읍성
돌로 쌓았으며, 둘레는 8,199척, 높이는 13척, 옹성은 16개, 치첩은 1,106개이다.[8)]

『성제고』의 기록에 따르면 둘레가 8,199척으로 순천의 낙안읍성(樂安邑城)이 둘레가 1,590척으로 약 4배 이상이었고, 고창읍성(高敞邑城) 역시 3,080척으로 2.5배 이상 큰 읍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도의 읍성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자치도 내의 읍성 중 전주읍성과 부안읍성 다음으로 큰 읍성이었던 점에서 남원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남원읍성은 정비·복원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약 200m정도의 성벽이 복원된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발굴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추후 성벽이 추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9)]

〈그림 1〉 남원읍성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원읍성을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여전히 발굴과 복원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와 더불어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다.

8) 南原邑城, 石築, 周八千一白九十九尺,高十三尺,甕城十六,雉堞一千十六.(『성제고』권3, 「동국성제」)
9)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697(2024.11.25.)

우선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활용의 측면에서 200m 복원된 성벽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북자치도 내 읍성만 보더라도 고창읍성의 경우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으며 영화촬영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남원읍성 활용의 한계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둘째,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남원읍성은 전북자치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2000년대 초반에 만인의총에 대한 확충사업이 실시되며 만인의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근처에 위치한 남원읍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원읍성 인지도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만인의총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원읍성은 현재 일부 성벽만이 존재하며 주차장시설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광한루원, 실상사를 비롯해 문화관광해설사 11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남원읍성에는 해설사가 활동하지 않고 있다.[10]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시설 또한 매우 부족하다.

넷째, 남원에서는 6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남원읍성과 관련된 축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11] 최근에는 자연경관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을 위해 20경을 선정하였고 8경이 만인의 총으로 선정되어 근처에 위치한 남원읍성 또한 쉽게 둘러볼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찾는 사람은 소수이며 지자체 역시 남원읍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에 남원의 공간구조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남원읍성 영역을 도시 기능이 집약된 중심거점인 컴팩트 도시화를 제안하기도 하였다.[12] 이는 남원읍성의 발굴 또는 복원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으로 보여진다. 즉, 남원읍성의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역사문화 탐방길 조성'사업을 제안하며 남원의 역사를 복원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남원읍성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우선 활용을 위한 복원 및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타지역의 읍성과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굴 및 복원 사업은 지지부

10) 전북연구원,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보고서』, 2023, 43쪽.
11) 남원에서는 남원 춘향제,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 남원 흥부제, 바래봉 철쭉제, 바래봉 눈꽃축제,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 고로쇠 약수축제, 황산대첩제, 삼동굿 놀이 등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https://www.namwon.go.kr/en/index.do?menuUid=ff8080818f51d606018f5664b4cc07fe)
12) 전북연구원, 위의 보고서, 147쪽.

진하다. 200m 남짓의 성벽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인식과 남원읍성의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남원읍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계획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기반시설 등을 바탕으로 남원시의 문화정책에서 남원읍성 활용은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남원읍성은 인지도 측면에서도 전북권역의 타 읍성에 비해 매우 낮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남원읍성의 활용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우선 남원의 주요 관광지 입장객 분석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인 '남원읍성'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통해 확인해보면 남원의 주요 관광지는 23개소로 최근 10년간 남원을 찾은 총 입장객은 41,365천명으로 연 평균 4,136천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13)]

〈표 1〉 남원시의 10년간 입장객 현황(천명)

10년간 입장객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1,365	4,680	4,672	5,118	5,160	5,064	2,890	3,266	3,824	4,793	1,817

이를 관광지별로 살펴보면 지리산국립공원이 약 12,991천명으로 가장 많은 입장객이 방문하였다. 다음으로 남원관광지, 광한루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

〈표 2〉 남원시의 10년간 관광지별 입장객 현황(천명)

관광지	총계	10년간 관광지 입장 현황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광한루원	11,635	1,343	1,440	1,371	1,388	1,168	529	586	774	685	877
교룡산국민관광지	745	42	75	87	83	82	68	65	80	52	57
국악의성지	217	28	29	32	21	24	3	7	13	13	14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397	-	-	30	61	59	26	25	53	60	80

13)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 검색일자 25.08.09.(https://know.tour.go.kr/stat/visitStatDis/ main.do)

관광지	총계	10년간 관광지 입장 현황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남원고전 소설문학관	31	-	-	-	-	-	-	-	12	13	5
남원관광지	12,144	1,183	1,207	1,336	1,361	1,103	756	602	1,089	2,264	-
남원상록 골프장	665	-	-	45	85	87	74	92	95	93	92
남원시 옻칠공예관	11	-	-	-	-	1	1	1	2	2	2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513	-	-	-	19	56	42	79	79	73	162
남원항공 우주천문대	293	26	31	29	25	29	10	24	29	30	33
드래곤 레이크c.c	457	-	-	-	-	-	-	71	133	128	124
만인의총	811	109	93	75	76	90	60	57	39	-	43
수지미술관	32	-	-	3	6	5	2	2	2	3	5
실상사	438	50	45	52	47	55	33	38	39	11	-
아담원	43	-	-	-	-	-	-	-	-	25	17
안숙선 명창의 여정	110	-	-	-	-	-	-	-	41	31	37
요천생태 습지공원	79	-	-	-	-	-	-	-	-	28	51
지리산 국립공원 (남원시)	12,991	1,444	1,284	1,534	1,472	1,622	971	1,290	1,039	966	-
지리산길 (1~3코스)	2,156	249	249	294	273	282	203	198	94	94	-
지리산 허브밸리	657	-	-	-	-	173	42	52	122	111	155
춘향 테마파크	1,140	135	147	154	163	147	53	43	49	59	54
혼불문학관	618	71	72	76	80	81	17	34	40	52	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검색일자 2025.08.09.
(https://know.tour.go.kr/stat/visitStatDis/table.do)

지난 10년간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지리산 국립공원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광한루원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만인의 총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원읍성의 경우 역사문화자

원임에도 입장객 계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광한루, 춘향테마파크 등 역사문화콘텐츠 기반의 관광지도 입장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광한루는 10년 사이에 절반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춘향테마파크의 경우 70% 정도 감소하고 있다. 남원의 주요 관광지점 23개소 중 역사문화자원과 관련 있는 관광지점 11개소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지만, 10여 년간 남원 관광객의 1/3을 유치하는 등 매력적인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남원이다. 즉, 활용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역사문화자원이 남원에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교룡산성, 춘향가 등 국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국악의 성지, 실상사, 가야고분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백제의 역사를 담고 있는 초촌리 고분군 등 고대부터 근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남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다.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남원읍성을 비롯해 남원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다.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해 남원시는 문화예술과 내에 국악진흥팀을 설치하여 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인 국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14] 또한 축제기획팀에서는 춘향제를 위한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 남원읍성이나 만인의총 등 기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남원읍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일부 확인된다. 2021년에 남원시는 '남원 문화비전 2025'용역 과제를 통해 남원읍성 활용을 위한 방안 제시하였다.[15] 특히 남원역 일대에 '만인공원'을 조성하여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을 활용하기 위해 발굴조사와 읍성 복원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남원시의 적극행정은 역사문화자원 활용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이다.

앞서 남원읍성의 활용 현황과 관광지 현황을 통해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남원읍성 활용관 관련하여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볼

14) <남원시 부서안내> https://www.namwon.go.kr/index.do?menuUid=ff8080818e3beff0018e40e951dd02d6&departmentUid=ff8080818f2d160f018f51abb07c13c2&departmentName=%EB%AC%B8%ED%99%94%EC%98%88%EC%88%A0%EA%B3%BC(2024.11.24.)

15) 주식회사 위드앤씨,『남원 문화비전 2025 수립용역』2021, 43쪽.

수 있다. 현재 남원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의 입장객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남원은 활용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원읍성을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춘향이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남원과 남원읍성·만인의총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저항과 평화'의 공간 남원으로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3. 인식의 전환 : '저항과 평화' 공간으로서의 남원읍성과 남원

한계와 기대를 통해 남원읍성만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남원의 역사문화자원을 한데 모아 남원읍성과 남원의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데 수월할 것이다.[16] 이에 '저항과 평화'의 공간이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17]

1) 남원읍성과 만인의총

남원읍성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복원이다. 그러나 복원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는 남원읍성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남원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인 광한루원은 춘향가의 주인공이었던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 장소로 조선시대 사회적 인식, 특히 사랑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아름다운 장소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춘향가'는 대표적 판소리로 민중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맞은편에는 춘향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남원시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사례가 되었

16) 남원성 전투의 중심이 된 남원읍성이 '평화'공간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 '평화'라는 용어가 전근대 시기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원 전체의 역사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남원읍성을 중심으로 평화의 공간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였다.

17) 본고에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남원읍성과 남원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실을 밝혀내는 문제보다 남원의 역사를 관통하여 역사성을 살피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개설적인 형태의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족한 실력으로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개인적으로 고민한 것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다. 남원 역사에 대한 인식은 광한루와 춘향테마파크가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만큼 광한루와 춘향테마파크는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2km 남짓에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이 위치하고 있다. 남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춘향가로 시작되어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로만 채우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남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전쟁의 화마를 피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품고 있다. 만인의총은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처럼 남원은 역사적 사건이 날실과 씨실이 교체되듯이 다양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지 못한 듯하다.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을 통해 남원읍성에 대한 역사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성(城)이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근대 방어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조선 후기 편찬된『성제고』는 성을 축조하는 방법과 조선을 비롯해 중국의 여러 성에 대한 특징과 규모를 기록하였다. 그리고「동국성제제론(東國城制諸論)」편은 류성룡, 유형원을 비롯한 인물들이 성과 관련하여 논한 내용을 묶어 만들어졌다.

> 글로 더 이상 자세한 것을 설명할 수 없으나, 대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마도 단시일에 전쟁이 평정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 성을 지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지금의 급선무입니다. '성주(星州)가 새로 수복되었다'라고 하니, 이곳도 마땅히 굳게 지켜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성 역시 수축해서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호받게 해야 합니다. 18)

류성룡은 성을 지키고 축성해야 하는 이유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축성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축성을 주장하였다. 유형원 역시 '성을 쌓아야만 외부로터 지켜낼 수 있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방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성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시설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수단이었으며 수천년간 전쟁이

18)『성제고』권3,「동국성제제론」.

발발했을 시기에는 방어수단이었으나 평상시에는 유목민족이 함부로 넘어갈 수 없었기에 중원의 한족 국가와 유목민족 간에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원읍성 역시 전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 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유재란이 끝난 뒤 성을 지키다 전사한 조명연합군, 백성, 의병 등의 유해를 모아 만인의총이 세워졌다.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은 자연스럽게 순절자의 정신을 강조하고 호국의 사례로 활용되는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19] 호국의 의미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저항과 제노사이드(Genocide)'의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남원읍성은 일본군에 의해 함락당하며 집단학살의 현장이 되었다.[20] 기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500~5000명의 조명연합군과 의병이 사망하고 민간인 역시 희생되었다. 즉, 남원성 전투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제노사이드의 현장이었다. 일본에 귀무덤은 제노사이드와 반인륜적 범죄를 증명하고 있다. 국가를 수호하는 정신의 의미만큼이나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은 저항의 역사이며 문화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시기 '일본으로부터의 저항' 그리고 '제노사이드'의 공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2) 황산전투와 피바위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 절정에 달하자 해안가 근처에서 활동하던 왜구는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고 남원도 왜구의 활동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성계(李成桂)는 황산전투를 통해 아지발도를 죽이고 왜구를 물리치며 왕권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황산전투에서 왜구의 피가 바위에 스며들어 붉은 색을 띈다는 피바위가 있으며 황산전투가 벌어진 여원치(女院峙), 팔량치(八良峙)는 여말선초 남원의 역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볼 수 있다. 황산전투와 피바위, 여원치, 팔량치는 '왜구로부터의 저항'공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3) 의병전쟁과 남원

전북지역의 한말의병은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 제국주의가 남한대토벌작전을

19) 박현구, 앞의 논문, 2019, 290쪽.
20) 고대에도 제노사이드는 존재하였으며 전쟁 과정에서 제노사이드는 동반되는 지극히도 반이성적인 현상이었다.(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

전개하기 전까지 약 20년 간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최익현과 임병찬이 주도한 태인의병, 전해산, 문태서 의병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북지역 한말의병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21] 전북의병은 지리산, 무주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라남도 등을 포함해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며 일본군 또는 경찰을 사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 출신 양한규는 중신 출신으로 남원 지역에서 의병장으로서 활동하였으며, 정일국 역시 남원출신으로 태인의병에 가담하여 활동한 바 있다. 황석(黃奭)은 기우만 의진 등에 참여하여 무장투쟁 하였으며 1919년 고종황제가 붕어하자 자결하여 순국하였다.

전북출신 독립유공자는 총 750명이며 임실 126명, 군산 75명, 남원 74명으로 남원 출신 인물들이 의병 및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22] 근대 남원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저항'의 역사이자 공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원의 좌익정당 활동과 민간인 피해

해방 직후부터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미군이 실시한 군사통치기간인 미군정기에 남한의 각 지역에서는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가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전북의 남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남원은 인민위원회의 힘이 강력했던 지역 중 한 곳으로 45년 10월 미군이 남원에 도착했을 때 남원인민위원회와 국군준비대(國軍準備隊)가 훈련을 하고 있었다.[23] 같은 해 11월 미군과 전주경찰서장이 일본인에게 받은 재산들을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남원인민위원장에게 전달하자 폭동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체포된 후 남원은 조용해졌다.

한국 현대사에서 좌익정당에 대한 주제는 워낙 민감한 만큼 소홀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2000년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제주를 비롯한 각 지역의 좌익정당을 비롯해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아직 전북에 대한 연구

21) 최근 전북연구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호남절의록』 등을 기반으로 1990년 초 제작된 『전북의병사』를 통해 남원에서 활동한 의병은 약 10명이 기록되어있으나 최근에는 훨씬 많은 이들이 서훈을 받았다.
22)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총서33-전북지역 항일의병과 독립운동』, 흐름출판사, 2015.
23) 브루스 커밍스 저,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下, 청사, 1986, 158쪽.

및 진상규명은 부족하지만 미국의 석학 브루스 커밍스를 비롯해 최근 연구에서는 남원에서의 사건은 한국 내 좌익 세력과 미군이 충돌한 최초의 사건으로 평가한다.[24] 남원 역시 한국현대사에서 등장하는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저항'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 김주열 열사의 학창시절

해방 1년 전인 1944년 남원 금지면에서 태어난 김주열은 유년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남원에서 다닌 뒤 1960년 마산상고에 입학하였다.[25] 같은 해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하였으나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약 1달여 만에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의 사망 당시 나이는 15살 꿈 많은 학생이었다. 김주열 열사의 시체가 발견된 것은 4.19혁명의 신호탄이 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에 의해 정권을 종식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방송프로그램 등을 통해 김주열 열사의 이야기가 재조명되며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김주열 열사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단지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현대사에 중요한 인물로만 기억하고 있으며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김주열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김주열 열사 종합기념관 확장건립 및 민주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다.[26] 현재는 추모공간이 조성되어 있지만 종합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남원이 '독재로부터의 저항'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남원은 저항의 역사를 품은 도시이며 남원읍성은 전근대 시기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이라 할 수 있다. 전쟁과 관련하여 일국사(一國史), 자국사 관점에서 호국 정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부의 침입이 빈번했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민족(韓民族)은 살아남았으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마음의 한편에는

24) 송정현, 「해방 이후 전북지역 미군정 활동」, 『남도문화연구』28, 2015, 151쪽.
25) 김행선, 「김주열, 4월 혁명의 횃불로 부활한 한 알의 밀알」, 『내일을여는역사』33, 2008.
26) (사)전북경제연구원, 「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확장건립 및 민주공원 조성연구 용역 보고자료」, 남원시, 2023.

‘호국’이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민족주의 역사관이 근대성과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민족은 일제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정신이 시대정신으로 발현되어 독립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민족주의와 근대성의 결합으로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만들어내며 근대 유럽과 일제가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지구 전체가 전쟁에 빠지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27] 이러한 역사적 현상이 나타나자 최근 역사연구와 역사교육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일국사적 관점을 벗어나 관계사, 세계사적 시각에서 봐라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8] 현대에도 그렇지만 전통시대에도 모든 인간과 사회, 국가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에 개별 국가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9] 관계사적·세계사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 특히 전쟁과 관련된 사실과 유적, 유물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의미는 ‘저항과 평화’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첫째, 20세기 후반부터 짐 허벨은 ‘환태평양 평화공원’ 조성 운동을 주장함에 따라 중국, 필리핀 등지에 평화공원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제주도에 환태평양평화공원이 대정읍의 알뜨르비행장 근처에 조성되었다.[30] 또한 제주 4.3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제주 4.3평화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로부터 핍박받은 기억을 추념하기 위해 평화라는 역사적 해석을 부여하였다. 둘째, 최근 중국에서는 대련과 여순을 중심으로 청일·러일 전쟁과 관련된 유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등과 분노에서 벗어나 전쟁 상흔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갖고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해 관련 유적지에 평화라는 역사적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공존과 공생을 위해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31]

전쟁유적은 호국, 애국의 의미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각자료로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호국·애국은 중요한 시기마다 시대정신으로 작용하여 한민족을 강하게 만들었고 외부로부터 침입에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유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침략과 전쟁없이 모두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쟁의 실상을 통해 갈등

27) 아자 가트·알렉산더 야콥슨 저, 유나역 역, 『민족』, 교유당, 2013.
28) 미야지마 히로시,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2013.
29) 김한규, 『한중관계사』,아르케, 1999.
30) 제주국제협의회, 『21세기 제주발전의 모색: 제주인의 역할 정립과 환태평양 평화공원 운동』오름, 2010, 263-279쪽.
31)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앞의 책, 55-56쪽.

과 분노는 잠시 멈추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전쟁유적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원읍성은 '저항과 평화'라는 역사적 의미를 모두 부여할 수 있는 장소이며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관군과 의병의 활동에는 저항이라는 의미를, 일본의 제노사이드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밝히고 평화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원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외세,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평화의 역사가 공존하는 지역이라 생각된다.

남원읍성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남원읍성을 비롯한 남원의 역사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 필자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저항과 평화'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싶다. 한편 평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공원이 조성된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대부분이 근대에 집중되어 있다.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후반의 상황과 당시 조성된 비행장 등이 활용되었으며 중국의 대련·여순 또한 청일·러일전쟁기 구치소 등이 평화기념관으로 조성되었다. 그렇기에 남원과 남원읍성이 '저항과 평화'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필자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반복되었고 전쟁 역시 반복해서 발발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성이 뚜렷한 남원과 남원읍성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남원읍성과 남원을 '저항과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4. '저항과 평화의 도시 남원읍성과 남원' 비전체계와 자매결연 도시 연계 방안

1) 자매결연 도시 활용을 위한 비전체계

자매결연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활용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 비전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필자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다양한 역사자원 등을 통해 남원읍성과 남원을 '저항과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역사성과 공간성을 부여하였다. 내·외부의 저항의 역사를 통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도시 남원과 남원읍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표 3〉 남원읍성 활용을 위한 비전

비전 체계		
‘저항과 평화의 도시 남원’ 역사성과 공간성 재확립		
전쟁 공간으로서의 남원읍성	이데올로기 및 독재정권에 저항한 남원	평화를 위한 저항의 역사와 공간 남원읍성과 남원

남원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저항과 평화의 도시 남원’ 역사성과 공간성 재확립의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어젠다를 통해 전쟁공간으로서의 남원읍성, 이데올로기 및 독재정권에 저항한 남원이라는 역사성을 새롭게 발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저항은 평화를 위한 행위였음을 제시함으로서 ‘저항과 평화의 도시 남원’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설정된 비전 체계 도입과 구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4〉 비전체계 도입과 구현을 위한 목표

‘저항과 평화의 도시 남원읍성과 남원’ 비전 체계 도입과 구현을 위한 목표
역사성과 공간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구축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대중화 정책 마련
역사문화 변경(邊境)에서 중심으로 확장을 위한 저변 확대

3대 목표는 위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역사성과 공간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구축’이다. 앞서 간략하게나마 남원읍성의 의미와 남원의 역사자원을 살펴본 바 있다. 깊이있는 고민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대중화 정책 마련’이다. 여전히 남원에 대한 기억은 지역민에게 ‘춘향’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지역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중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있으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의 변경에서 중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저변 확대를 마지막 목표로 설정하였다.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역사성과 공간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이다.

〈표 5〉 '역사성과 공간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구축' 정책과제

역사성과 공간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구축 정책과제
1. 저항과 평화의 도시 남원의 역사성과 공간성에 대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연구심화
2. 저항과 평화의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
3. 남원읍성의 발굴 및 복원 등 시설물 확보

다음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대중화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이다.

〈표 6〉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대중화 정책 마련' 정책과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대중화 정책 마련 정책과제
1. 저항과 평화의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지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민과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
3.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선점을 위해 국외 유사 역사성을 보유한 도시와의 민관 교류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변경에서 중심으로 확장을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7〉 '역사문화 변경에서 중심으로 확장을 위한 저변 확대' 정책과제

역사문화 변경에서 중심으로 확장을 위한 저변 확대 정책 과제
1. '저항과 평화'의 어젠다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마련
2. '저항과 평화'의 어젠다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체계 마련
3. '저항과 평화'의 역사문화자원 세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국외 도시 교류

앞서 비전을 통해 제시한 '저항과 평화의 도시 남원'의 역사성과 공간성 재확립을 위해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대중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체계 마련 및 국외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자매결연 도시 연계 방안

최근 각 지자체는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 지자체의 자매결연은 해당 지역의 발전 또는 이를 달성하고자 다른 자치단체

와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32] 자매결연을 통해 각 지자체는 물품이 오가는 물적 교류와 사람 또는 축제 등을 교류하는 비물적 교류로 분류할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교류 형태는 축제 등 문화 행사를 교류하는 비물적 교류가 주를 이룬다. 1961년 경남 진주시와 미국 오리건주의 유진(Eugene)시와의 결연을 시작으로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우리나라의 145개 지자체가 40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국외 도시와 교류하고 있다.[33] 각 지자체는 국제교류를 통해 문화·경제·사회 등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자매결연'은 전문성, 재정, 지자체장의 리더십 문제 등 저해요인으로 인하여 재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4] 최근 다양한 연구성과를 통해 '자매결연'의 필요성과 대안,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96년 남원시는 중국 강소성의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22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의 마리나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국외도시들과 협력해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 펜데믹으로 국외와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10여년 동안 공무원 간의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교류는 2016년 춘향제에 염성시 예술단이 초청공연에 참석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남원시는 염성시와 약 25년간의 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최근 자매결연을 맺은 마리나시는 시작단계인 만큼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매결연 도시와의 연계가 협력과 외연 확대를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자매결연 도시와의 연계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2016년에 중국 섬서성(陕西省) 서안시(西安市)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 당시 진주시와 서안시는 자매결연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서안시의 중심에는 서안성이 개보수를 거쳐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전되어 있다. 서안시와 진주시는 역사문화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통해 협력하고 있었다. '2016 서안 성명 신충 등(燈) 축제'에 진주 유등(油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에 진주에서

32) 허훈, 「국내 기초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실태분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 2008, 93쪽.
33) 엄운섭,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교류의 활성화 방안」, 『한국토지행정학회보』9, 2002, 42쪽.
34) 엄운석, 위의 논문, 38-39쪽.

직접 제작된 유등과 진주소싸움, 장승을 그린 등이 전시되어 중국인들에게 진주를 알릴 수 있었다.

〈그림 2〉 서안성벽 위의 진주 유등

〈그림 3〉 서안성벽 위의 진주 유등

서안성곽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서안시 시민들은 매일 같이 서안성곽을 가는 것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35] 이는 등 축제에서 진주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서안시는 이를 계기로 이듬해에 진주성에 등을 전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진

35) 김동찬·마원, 앞의 논문, 2011.

주시와 서안시는 자매결연을 통해 국외홍보의 효과와 더불어 자신들의 역사문화자산을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다.

앞서 비전체계의 정책과제로 제안한 항목 중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자매결연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역사문화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1) '저항과 평화'의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관 주도의 교류

최근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36] 2025년에는 독일, 일본, 브라질 등 각국의 농민봉기에 대한 역사 공유를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기조발제를 통해 '지역사의 세계화'라는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혁명'이란 키워드를 바탕으로 각국이 연대하여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는 일부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저항과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에서 자매결연 도시와의 연대를 공유할 수 있다면 관 주도하에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마리나(Marina)시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폐쇄된 미군 기지인 포트 오드(Fodt ord)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미국 제 보병 7사단이 주둔했던 기지로서 미 보병 7사단은 6.25에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 등에 투입되었다.[37] 마리나시는 대한민국 건국과 이데올로기 갈등을 직접 경험한 도시이기도 하다. 인구 23,000여명 중 1/8에 해당하는 3,000여명이 한국계이기도 하다. 전후 과정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정착한 한국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으로부터 저항과 평화를 위해 참전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역사문화 교류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2) 지자체 주도의 자매결연에서 민간주도 자매결연을 위한 기반 조성

지자체 간의 교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선진 도시의 경험을 학습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교류이지만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자매결연은 도시 간 경계

36)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11504638(2025.06.20)
37)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90(2025.06.20.)

를 허물고 진정한 교류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미 춘향제 예술단이 염성시에 초청되어 공연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자체의 도움이 없이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각 지자체는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38]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민간단체가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양 국가의 문화와 사회를 넘어 지역의 문화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에 예술단체를 넘어 민간단체가 다양한 주제로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여 진정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교육 차원의 교류

염성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선과 명이 함께 공유한 역사적 사실이 남원읍성에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염성시는 강소성에 소재한 지역으로 명의 수도가 위치한 남경에 이어 강소성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일찍이 주원장의 남경을 근거지로 성장하여 강소성과 안휘성 등 강남 지역에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강남의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한 주원장은 원을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게 된다. 명 초기부터 직예(直隸)로 불리며 명나라의 기반을 이루었던 지역이었다. 강소성은 명의 강한 영향력이 계속되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소성의 소주(蘇州) 가씨(賈氏)는 중시조 가유약(賈維鑰)이 임진왜란에과 정유재란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아들과 손자가 남원 전투에 참여하였다.[39]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은 남원에 3,117명의 군사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관군과 함께 조명연합군이 조직되어 일본군과 싸웠다. 그리고 약 3,000여명의 명군이 전사하였다. 남원읍성에서의 전투를 한국과 중국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조선과 명이 일본에 함께 대항했던 역사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의 해외연수와 더불어 학생들의 교류가 필요하다.

38) https://www.pief.or.kr/kor/board/viewArticle.do?bbsId=sub04_01&nttId=2869(2025.06.20.)
39) https://www.grandculture.net/dangjin/toc/GC06400668(2025.06.20.)

(4) 온라인 국제교류

최근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국외 교류가 제한적으로 진행된 경험을 했다. 단절이 아닌 지속을 위해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 운영이 가능한 웹사이트 구축은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화상 수업 등 개설하여 양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미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외에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젊은 세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5) 공동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발굴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 중심의 학술행사를 통해 자매결연 도시와의 공통분모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자매결연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자매결연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남원시가 염성시와 마리나시와 어떠한 의도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남원시에서 충분히 제공해준다면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수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간의 교류를 진행한다면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이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공동의 역사문화자원을 찾아낸다면 공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매결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자매결연 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연계는 단순히 상대도시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함께 역사와 사람을 공유하며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역사와 사람을 통해 진정한 교류와 외연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홍보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경제적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남원읍성과 남원은 남원과 염성시·마리나시에 대해 공통된 역사적 기억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매결연 도시인 염성시·마리나시와의 공유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저항 정신의 의미와 평화와 공생의 의미로서 남원읍성과 남원을 자매결연 도시와 공유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현재 남원읍성은 발굴과 복원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활용이란 측면에서 남원읍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유형의 문화유산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보완 및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남원읍성을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형식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활용은 일회성 활용일 뿐이다.

이에 남원읍성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원읍성의 자체만으로 의미를 찾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발굴작업과 복원은 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이지만, 남원시의 적극행정 및 여전히 남원의 관광객이 역사문화자원을 찾아오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그럼에도 만인의 총을 비롯한 남원읍성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남원읍성과 남원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모두 묶고 남원의 역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남원은 수많은 전쟁과 이데올로기로부터 저항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의 역사는 미래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남원읍성은 '저항과 평화'라는 역사적 의미를 모두 부여할 수 있는 장소이며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관군과 의병의 활동에는 저항이라는 의미를, 일본의 제노사이드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밝히고 평화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원 역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외세,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평화의 역사가 공존하는 지역이라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저항과 평화'라는 새로운 의미를 남원읍성과 남원에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정책 활용을 위해 비전체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저항과 평화의 도시 남원'역사성과 공간성 재확립의 어젠다를 바탕으로 전쟁, 이데올로기, 독재정권에 저항한 남원읍성과 남원이라는 역사성과 공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서 역사성과 공간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대중화 정책 마련, 풍부한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의 변경의 지위를 탈피하고 중심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대 목표를 위해 각각의 정책과제 또한 제시하였다. 역사성과 공간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저항과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도시 간 교류, 남원읍성 발굴 및 복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대중화 정책으로 교육 프로그램, 지역민과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 국외 도시와의 민관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변경에서 중심으로 확대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마련과 홍보체계 구축, 국외 도시 교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저항과 평화'는 다국가간의 초월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각 지자체는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협력을 약속하고 공생의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는 남원읍성과 남원에 '저항과 평화'라는 이미지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매결연 도시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자매결연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저항과 평화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남원시는 '저항과 평화'의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6.25에 참전했던 미 보병 7사단 주둔지인 마리나시와 교류할 필요가 있다. 경제, 자연의 교류를 넘어 역사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와 '저항과 평화'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주도의 교류 차원에서 염성시와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원시는 민간 주도의 국제교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염성시 또한 역사적으로 조선과 명이 함께 공유한 역사적 사실이 남원읍성에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따라서 양 도시간의 공동의 역사 교육 및 교사의 해외 연수, 학생들의 교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마리나시와 염성시와의 교류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세대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염성시와 마리나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남원시는 연구자간의 교류를 통해 공동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연계는 단순히 상대도시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함께 역사와 사람을 공유하며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역사와 사람을 통해 진정한 교류와 외연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홍보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경제적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남원읍성은 한국과 중국에게 공통된 역사적

기억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매결연 도시인 염성시와의 공유를 통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마리나시 역시 6.25 전쟁과 관련하여 공통된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저항 정신의 의미와 평화와 공생의 의미로서 남원읍성과 남원을 자매결연 도시와 공유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5. 07. 01 / 심사개시일: 2025. 08. 01 / 게재확정일: 2025. 08. 08

참고문헌

1. 자료

『선조실록』

『성제고』

2. 단행본

김한규, 1999,『한중관계사』, 아르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2021,『동북아시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 경인문화사.

미야지마 히로시, 2013,『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브루스 커밍스 저/김주환 역, 1986,『한국전쟁의 기원』下, 청사.

아자 가트·알렉산더 야콥슨 저/유나역 역, 2013,『민족』, 교유당.

전북연구원, 2023,『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보고서』.

전주역사박물관, 2015,『전주학총서33-전북지역 항일의병과 독립운동』, 흐름출판사.

제주국제협의회, 2010,『21세기 제주발전의 모색: 제주인의 역할 정립과 환태평양 평화공원운동』오름, 263-279쪽.

최호근, 2005,『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3. 논문

김동찬·마원, 2011,「중국 서안시 명성곽공원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한국조경학회지』39(1), 한국조경학회, 75-83쪽.

김철영, 2014,「대구시 읍성지역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도시설계』15, 한국도시설계학회, 47-60쪽.

김행선, 2008,「김주열, 4월 혁명의 횃불로 부활한 한 알의 밀알」,『내일을여는역사』33,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112-124쪽.

송정현, 2015,「해방 이후 전북지역 미군정 활동」,『남도문화연구』2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33-158쪽.

박현규, 2019,「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순절자의 무덤과 제향 연구」,『일본연구』 32,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75-295쪽.

_____, 2018,「정유재란 시기 남원성 전투 고찰-명 양원(陽元)을 중심으로」,『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5,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117-147쪽.

엄운섭, 2002,「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교류의 활성화 방안」,『한국토지행정학회보』9, 한국토지행정학회.

이강열, 2013,「병영성과 호서좌영의 역사성을 살린 서산 해미읍성의 문화컨텐츠 활용방안」,『충청학과 충청문화』1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3-98쪽.

이향란·이상준, 2012,「읍성공간 건축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도시설계』13, 한국도시설계학회, 61-72쪽.

최봉룡, 2021,「청일·러일전쟁기 대련·여순 지역의 전쟁 유적」,『동북아시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 경인문화사.

허훈, 2008,「국내 기초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실태분석」,『한국지방자치학회보』20, 한국지방자치학회, 95-117쪽.

4. 기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검색,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ulPageNo=3&region=&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2=&s_kdcd=&s_ctcd=35&ccbaKdcd=13&ccbaAsno=02980000&ccbaCtcd=35&ccbaCpno=1333502980000&ccbaCndt=&ccbaLcto=15&stCcbaAsno=&endCcbaAsno=&stCcbaAsdt=&endCcbaAsdt=&ccbaPcd1=&chGubun=&header=region&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pageNo=1_1_3_1&sngl=Y (검색일: 2024.11.15.)

국가유산청, 만인의총 홈페이지, https://www.khs.go.kr/agapp/public/html/HtmlPage.do?pg=/manin/01/sub01_01.jsp&pageNo=79010000&siteCd=MANIN (검색일: 2024.10.24.)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https://know.tour.go.kr/stat/visitStatDis/main.do (검색일: 2024.11.15.)

남원시청 누리집, https://www.namwon.go.kr/en/index.do?menuUid=ff8080818f51d606018f5664b4cc07fe (검색일: 2024.11.25.)

남원시청 누리집, https://www.namwon.go.kr/index.do?menuUid=ff8080818e3beff0018e40e951dd02d6&departmentUid=ff8080818f2d160f018f51abb07c13c2&departmentName=%EB%AC%B8%ED%99%94%EC%98%88

%EC%88%A0%EA%B3%BC (검색일: 2024.11.24.)

디지털당진문화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dangjin/toc/GC06400668 (검색일: 2025.6.20.)

세계일보, 2025.5.11., 「'동학정신의 가치, 세계와 공유' 정읍시 제4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성료」,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11504638 (검색일: 2025.6.20.)

미래한국, 2016.8.17., 「미 7사단, 한국을 떠나다」,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90 (2025.06.20.)

전북도민일보, 2024.11.21., 「남원시 2025년 예산안 9천871억원 편성」,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697 (검색일: 2024.11.25.)

평택시국제교류재단, https://www.pief.or.kr/kor/board/viewArticle.do?bbsId=sub04_01&nttId=2869 (검색일: 2025.6.20.)

(사)전북경제연구원, 2023, 『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확장건립 및 민주공원 조성 연구 용역 보고자료』, 남원시.

<Abstract>

Historical Meaning and Utilization of Namwon-eupseong

Focusing on Ways to Connect Sisterhood Relationship

Lee Seok-Hyung*

Namwon-eupseong(邑城) was rebuilt in 1597, when the Imjin War broke out, peace negotiations broke down, and right before the Jeongyu war(丁酉再亂) broke out again. Namwon-eupseong, which has a very important historical meaning, has recently been excavated and restored. Recently, the local government where the eupseong is located operates various cultural events and focuses on expanding the value of the town in terms of utilization beyond preservation. However, focusing on the socio-economic aspects, the historicality of the eupseong is not properly given and limits are exposed.

In particular, Namwon-eupseong Fortress has a clear limitation in using the wall in a restored state of about 200M. It is time for various attempt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use of Namwon-eupseong and give it historicality based on this. However, Namwon, where the eupseong is located, has vario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ccordingly, the historical properties of Namwon-eupseong and Namwon' were analyzed and a utilization plan was suggested by combining them with speci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region.

For the use of Namwon-eupseong, it is necessary to give historicality from various perspectives rather than simply giving historicality to honor the spirit of 'patriotic' as a historic site of war. Recently, cases of giving the meaning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in relation to war relics are increasing. Namwon-eupseong is also thought to be able to give the meaning of 'peace for coexistence and coexistence' from a Trans-national point of view beyond the spirit of 'patriotic', which is a National History point of view. Accordingly, Namwon-eupseong and Namwon can give historicality as a city of 'resistance and peace'. This will be possible through exchanges with others beyond us. Therefore, measures through connection with Namwon-si and the city that signed a sisterhood alliance were presented together.

Key Words : Namwon-eupseong(南原邑城), Peace, Resistance, Sisterhood relation ship, Utilization